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목 : 은혜 베풀 때와 구원의 날

성경: 고린도후서 6장 1-10절

Tag:

1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2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3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4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5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6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7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8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9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10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후6:1-10)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은혜 베풀 때를 노리는 자다.**

왜냐면 **그 때가 바로 구원의 날**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을 보았다. 받아서 그

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길가에 뿌려진 씨앗 이야기를 되새겨야 하고, 가시밭과 돌밭에 뿌려진 씨앗도 되새겨야 한다.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그와 같이 열매 없는 신앙인이 된다.

은혜 베풀 때와 구원의 날은 이사야 선지자가 먼저 예언하였다.

8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단수형)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사49:8)

이사야 49장은 구원의 노래로 가득하다. 주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로하는 말로 가득하다. 아직은 그들이 포로생활로 고달프지만, 이사야는 그들을 향해 예언한다.

14 오직 시온(이스라엘 백성, 주의 백성들, 오늘날의 교회)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15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바울은 이 예언이 말씀을 자신의 시대에 적용하였다. 이때야말로 진정 구원의 날이라 믿었다.

그러나 실상은 바울의 선교 현장은 그리 화려한 날들이 아니었다. 바울은 구원의 날에 대한 확신이 강했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았다. 항상 경제적인 문제가 일순위였다. 바울은 탄력적으로 일하면서 경제적인 문제를 헤쳐 나갔다.

무엇보다 선교현장에서 동족들의 방해가 가장 심각했다. 그들은 바울의 설교를 조목조목 따지면서 대적하고 심지어 생명을 위협하기까지 하였다.

이방인의 방해 또한 무시할 수 없었다. 그들은 특히 우상숭배와 관

런해서 바울을 공격하였다.

그러나 그 모든 핍박들도 바울의 구원의 확신에 대한 열정을 꺾을 수는 없었다. 그에게는 바로 이때가 구원의 날이었다. 포로에서의 귀환만 구원의 날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죄와 저주에서 벗어나는 날이야말로 진정 구원의 날이 아닐 수 없다고 믿었다.

그런데 이사야의 예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은혜의 때란 다름 아닌 내가 부르짖는 때임을 알 수 있다.

8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언제가 은혜가 임하는 날인가? 그 때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이다. 언제가 구원의 날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여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때가 곧 구원이 날이다. 은혜의 때가 곧 구원의 날이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가 곧 은혜의 때요, 도우시는 날이요, 구원의 날인 셈이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는가? 기도만 하였을까? 식당에서는 주문만 하고 기다리면 된다. but, 현실은 그렇지 않다. 당시 바울은 자신의 직분이 비방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었다. 생명의 위협까지 겪고 있었다.

비방을 받게 되면 복음전파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래서 아무쪼록 비방을 받지 않고 거리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간구하였다. 무엇에도 거리낌이 없도록, 아무에게도 거리낌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였다.

바울에게는 강한 책임감이 있었다. 무엇인가 거리낌이 있으면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다. 누군가에게 거리낌이 있어도 그 거리낌을

해소하려고 노력하였다. 주도적으로 문제에 접근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문제가 풀어질 수 있도록 힘썼다.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였다. 이것이 곧 부르짖는 기도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래서 도와 달라고 부르짖을 때가 곧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때이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라. 도움이 필요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내 생각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우리는 흔히 문제를 두고 방치하기 쉽고, 남탓하기 쉽고, 내가 풀 문제가 아니라고 뒷집지기 쉽다. 나는 작년 한해 동안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앓느냐는 말을 지겹게 들었다. 꼼짝 할 수가 없다고들 한다. 하려고 해도 누구 한 사람 확진자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며, 누가 책임질 거냐고 따진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도 없게 된다.

요즘은 미디어 시대다. 대적들이 미디어를 이용해서 교회를 비방하는 시대가 되었다. 2000년대를 들어서면서 미디어를 통한 교회 비방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요즘들어는 뉴스까지 드러내 놓고 교회를 비방하고 있다. 거짓말인데도 버젓하기까지 하다. 과거 광우병 소동이 그랬고, 효선이 미순이 사건도 그랬고,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도 그랬다. 요즘은 코로나 관련 정치방역이 그렇다. 교회만 아니면 방역을 풀어줄텐데 하는 식이다. 간접적으로 교회 때문에 풀어줄 수 없다는 인식을 하게 만든다. 추석이나 설날만 아니면 풀어도 되는데(이때 사람들 모여서 정부를 비판할 것이 뻔하므로) 3.1절이나 8.15만 아니어도 풀 수 있는데... 그런데 때려도 때려도 아무말 못하는 교회만 동네 북이다.

이런 교회비방이 버젓한 시대에 교회가 부르짖지 않을 수 있겠는가?

바울은 부르짖었을 뿐 아니라 사람들로 부터 공감을 이끌어냈다. 바

울의 대적들도 그의 생각과 사상과 복음을 공격할 수 있었어도 그의 선행만은 공격할 수 없었다. 그는 예수님처럼 행동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바울은 먼저 반듯한 기독교인으로 행동하였다.

### 6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바울은 깨끗하게 행동했다. 행동이 깨끗했다.(악한 의도로 행동하지 않고, 자신의 개인적 이익에 목적을 두지 않았다.) 무식하게 행동하지 않고 지식을 따라 행동하였다.

또한 오래 참았으며, 자비를 베풀었고, 성령의 감화로 일했고, 거짓 없이 진심으로 사랑을 베풀었다.

기독교는 이념이기 보다는 기독교인다움이 그 정체성이다.

christianism이 아니라, christianity다.

ism이 없잖아 있지만, 그것을 위해서 행동하지 않는다.

ism은 행동규범이 아니라 가치관이다. 그 가치관을 실현하기 위한 행동 규범은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기독교인이고, 그래야 진짜 기독교다. 그래서 기독교를 영어로 christianity라 한다.

기독교인다움이 곧 기독교라는 뜻이다. 기독교적 교리나 가치관이 곧 기독교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열매 없는 기독교인은 가짜일 뿐이다.

행동 없는 양심은 기독교가 아니다.

땀 흘리지 않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다.

일주일 동안 땀을 흘리고, 주일에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을 받는다. 그 부르짖음이 은혜의 때를 끌어당긴다. 그때 비로소 구원받는다.

### 7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그때 비로소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창세기 원역사 4      성경: 창세기 4장

Tag: